

10 | 무연탄 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흉막의 악성 중피종

성별	남	나이	52세	직종	무연탄 광업	업무관련성	높음
----	---	----	-----	----	--------	-------	----

1 | 개 요

근로자 박○○은 1974년 6월부터 무연탄 광산에서 약 16년간 일하다가 1990년부터 약 1년간 건물 철거 및 콘크리트 타설을 하였고, 그 후 2006년 12월까지 철근공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. 2007년 10월 흉막의 중피종 악성 신생물, 가슴막 삼출액으로 진단받았다.

2 | 작업내용 및 환경

근로자 박○○은 1974년 6월부터 1980년 12월까지 ○○탄좌, 1981년 1월부터 1985년 1월까지 ○○광업소, 1985년 2월부터 1990년 2월까지 ○○산업(주) ○○광업소(모두 현재 폐광)에서 굴진, 채탄, 운반 등의 작업을 하였다. ○○탄좌와 ○○광업소에서는 작업시 보호구는 전혀 없었고, 분진이 매우 심하게 발생할 경우에만 수건으로 코와 입 부위를 가리는 정도였다. ○○산업(주) ○○광업소에서는 무연탄 운반 작업을 하였는데 개인 호흡 보호구를 착용하였다. 1990년 3월 이후 1년 정도는 소규모 건축 현장에서 콘크리트 혼합과 타설 작업, 건축물 해체와 철거 등의 일을 하였다. 그 후에는 철근 가공 조립일만을 2006년 12월까지 하였다.

3 | 의학적 소견

이직 근로자 박○○은 음주는 20세 초반부터 주 1회, 소주 약 2병씩 10년간 하였고, 그 후 금주하였다. 흡연력은 22 갑년이고 2007년 5월 이후 금연 중이다. 2007년 3월에 시작된 호흡 곤란으로 개인병원에서 촬영한 단순 흉부 촬영에서 흉막 삼출이 관찰되었고, 결핵 치료를 1개월 시행하였으나 증상 호전 없어 좀 더 큰 병원에서 진료를 권유받았다. 2007년 4월에 ○○병원에 방문하여 CT등의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검사 거부하고 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추가적으로 흉통이 발생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다시 2007년 10월 23일에 ○○병원을 방문하여 CT 및 조직검사 등을 시행하였다. 조직검사는 조직 불충분으로 진단 및 석면 소체를 확인하지 못하였고, 주치의의 임상적 소견으로 가슴막의 악성 중피종의 임상적 진단을 받고 현재 통증 조절 등 대증적 치료를 하면서 경과관찰 하고 있다.

4 | 결 론

근로자 박○○은

- ① 흉막의 악성 중피종으로 임상적 진단을 받았으며,
- ② 악성 중피종의 80%이상은 석면에 노출된 후 발생하고,
- ③ 소량의 석면 노출에서도 악성 중피종이 발생할 수 있는데,
- ④ 33년 전부터 약 17년(탄광부로 16년, 건축업 1년 미만)간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,

근로자 박○○의 흉막에 발생한 악성중피종은 과거 약 33년 전부터 약 17년간 ○○탄좌, ○○광업소, ○○산업(주)○○광업소 및 소규모의 건축 폐기업에서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.